

# 도시형 대안학교 공간의 치유환경에 관한 연구

- 성미산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Healing environment of Urban Alternative School's space

- Focused on Sungmisan School's space -

진 달 래\*

김 광 호\*\*

Jin Dal-rae

Kim Kwang-ho

### Abstract

As de-schooling students (students who leave schools) have been produced and increased in middle and high schools every year since 1990s, urban alternative schools have founded with Seoul as the center. The objects of such urban alternative schools are de-schooling teenagers, and their educational goal is to make the students to discover their own values and grow as members of the community by accomplishing their healing and growth. Most of students in alternative schools have excessive self-centered feeling than ordinary people, and since they don't have exchanges with others, they have to receive holistic healing along with education. Here, 'healing' is a method of approaching to health through environmental,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supports unlike 'treatment' used for medical means. Therefore, holistic healing for alternative schools' students has to accomplish self-knowledge, self-control, and self-healing without repulsion through spaces of healing environments instead of heavy-handed exchanges. This study has integrated a theory of Max Lüscher who suggested a psychological healing theory in terms of internal character and a theory of Rudolf Steiner who suggested it in terms of practical and holistic sense and analyzed Sungmisan School, one of urban alternative schools in Seoul through the integrated theory. The analysis of the integrated theory are intend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healing environments and suggest methods in creating healing environments for urban alternative schools in the future.

키워드 : 도시형 대안학교, 심리치유이론, 막스 뤼셔, 루돌프 슈타이너, 전인적 치유환경

Keywords : Urban alternative school, Psychological Healing theory, Max Lüscher, Rudolf Steiner, Holistic Healing Environment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57년 구소련의 대륙간탄도탄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과학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의 급속, 전면적인 발전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으로 초·중등 교육에서는 교내 폭력, 결석, 중퇴 등 교육의 황폐화가 발생하여 60년대에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5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자유학교', '개방학교' 및 '벽 없는 학교' 등의 학교에서 교육 개선을 시도하는 대안 교육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미국, 네덜란드 등 전 세계에 6백 40여개의 대안학교에서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설학교로서 명문학교로 인정받는 학교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1980년 대말 대안 교육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학교의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하나의 방법으로 대안 학교가 논의 되어졌다<sup>1)</sup>. 농촌 지역에서 기존 교육제도의 대안으로서 시작되었지만 90년대 후반에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른 바 '도시형 대안학교'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 '도시형 대안학교'는 탈학교 청소년들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치유와 성장을 이루어 내어 자기 가치를 발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도시형 대안학교'의 등장은 90년대 이후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 탈학교 청소년들의 다수가 은둔형 외톨이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는 친구가 하나 혹은 없거나 3개월 이상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가족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하려하지 않으며, 부

\* 정희원, 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1) 이민선, 정진주, 최효승, 도시형대안학교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역시 설과 연계 활용방안, 2008

모에게 응석을 부리고 심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정서적인 면에서 일본에서의 히키코모리와 비슷하게 자기혐오나 상실감 또는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은둔형 외톨이는 매년 중, 고등학교에서만 5만 명 이상의 중도탈락자가 생기는 데이터를 통해 일본의 경우에 대입하여 추산해 10만 명 정도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IT선진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정 내에서의 대화가 줄어들고 인터넷을 통해 보내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것에 따라 그 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

대안학교는 교육제도 개선에도 물론 충실하여야 하지만 이렇게 주된 교육의 대상이 변화함에 따라 내면적인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논리적인 학습이전에 내면의 치유를 통해 인성발달을 초점으로 하는 환경조성이 대안학교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린턴(Linton)<sup>2)</sup>은 ‘치료’란 의학적인 수단을 통하여 질병상태를 건강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의미로 해석하는 반면, ‘치유(healing)’는 그 이외에도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지원을 통해 건강에 접근해 가는 방법으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치료라는 개념과 치유라는 개념에 대하여 구분 없이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콜로라도대의 교수이자 의료컨설턴트인 카이저(Kayser)는 치유는 정신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서 치유환경이란 것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능동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교류가 적은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 환경 그 자체이다. 따라서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발적인 치유환경의 프로그램과 이미지를 갖는 공간구성을 통해 거부감 없는 self-knowledge, self-control, self-healing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안학교 공간의 전인적(holistic) 치유개념에 가장 근접한 심리치료방법론을 제시한 막스 뤼셔와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론을 공간적 요소와 연계시켜 통합한 것이다. 뤼셔의 이론은 내면적 인격의 특성에 근거한 분석적 적용 측면에서 그리고 슈타이너는 전인

적 감각 교육의 실질적 측면에서 심리치유이론을 형성한다. 그렇기에 이들 간의 통합적 이론 적용은 보다 총체적 측면에서 공간치유의 이론을 구축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안학교는 관공서의 장소를 빌려 운영되거나 공장형 건물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어 공간적 환경에 대한 고려는 대체로 미비한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단독시설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대안학교 세 곳 중 하나인 성미산 학교를 분석사례로 선정하여 뤼셔와 슈타이너의 이론간에 통합된 새로운 기준을 통해 공간적 이미지와 치유프로그램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 2. 대안학교 공간과 막스 뤼셔의 치유 이론

### 2.1 뤼셔의 자기중심적 자기감정 이론

도시형 대안학교에서의 교육 대상들은 막스 뤼셔(Max Lüscher, 1923- ,스위스)<sup>3)</sup>의 네 가지 자기감정 불균형 상태를 기준으로 나누어 해석해 볼 수 있다. 뤼셔는 한 가지 자기감정이 균형을 잃으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분열된다고 말하였다(예:+1 충족에 대한 욕구; -1 불만)<sup>4)</sup>. 두 극은 상생하는 관계에 있으며 이들은 자석의 경우처럼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고 둘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지배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양극화된 자기감정의 “내적” 긴장이 정신적 고통의 실제원인이 된다. 그리고 심적인 병이 발생하고 감정적 충돌이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 그 실제 원인이기도 한 것이다.

막스 뤼셔의 이론에 따라 네 가지의 자기감정에 각각 숫자를 부여할 수 있다.

만족=1    자존=2    자신=3    내면의 자유=4

그리고 여덟 가지 잘못된 자기중심적 자기감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2) 린턴(Ralph Linton), 1893.2.27~1953.12.14, 린턴은 매디슨의 위스콘신 대학교(1928~37)와 컬럼비아대학교(1937~46) 및 예일대학교(1946~53)에서 교수를 지냈다. 인류학과 심리학 및 사회학 이론을 종합한 <인간 연구 The Study of Man>(1936)는 그의 가장 중요한 이론서로 꼽힌다. <인성의 문화적 배경 The Cultural Background of Personality>(1945)에서 린턴은 기본적인 인성 유형을 이루고 있는 공통요소인 ‘지위 인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요저서인 <문화의 계보 The Tree of Culture>(1955)에서는 인간의 기원을 탐구하고 영장류의 생물학적 요소가 문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했다.

3) 막스 뤼셔(Max Lüscher)는 1923년 9월 9일 스위스의 바젤에서 태어났다. 바젤 대학에서 철학, 심리학, 정신의학을 공부하였으며, 1947년에 처음 나온 뤼셔 색채 테스트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세계 각지의 여러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였으며 또한 정신치료사이기도 하다. 그의 여러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우리 안의 조화의 법칙」은 그의 중심 저서이며, 철학적 토대 위에 있는 그의 자기조절심리학을 서술한다. 뤼셔 색채 테스트는 이 자기조절심리학에 근거하고 있다.

4) 막스 뤼셔 저, 김지혜 역, 우리 안의 조화의 법칙, 까치 출판사, 2003, p.71

표 1. 자기중심적 자기감정

++1	자기방임(자기방임 또는 자기 마취의 욕구)
--1	자기불만(만항 없는 공허에 대한 기본적 공포)
++2	자기강제(우월, 위선, 존경, 권한에 대한 지나친 요구)
--2	자기해방(좁은 곳에 대한 기본적 공포)
++3	자기숭배(자기숭배, 과시하려고 함, 도전적, 공격적)
--3	자기연민(과로, 과도한 부담, 감당 못하고 압도되는데 대한 기본적 공포)
++4	자기도피(환상적 기대로의 도피)
--4	자기불안(넓은 곳에 대한, 상실에 대한 기본적 공포)

2.2 튀셔의 이론에 따른 교육대상 분석

실제로 사람들의 3/4이상은 이러한 여덟 가지 잘못된 자기중심적 자기감정중 하나를 지니고 있으며 대안 학교 학생 대부분의 경우 일반 사람들보다 지나친 자기중심적 자기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튀셔는 말하고 있다. 발달장애 및 정서장애의 대표적인 것들을 튀셔의 잘못된 자기중심적 자기감정으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발달장애 및 정서장애의 자기중심적 자기감정

++1자기방임 --1자기불만	++2자기강제 --2자기해방	++3자기숭배 --3자기연민	++4자기도피 --4자기불안
강박장애	자폐증, 아동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A),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학교공포증), 은둔형외톨이

위와 같은 장애들은 신체 생물학적 이상으로 인해 발병되기도 하지만 심리, 정서적 요인에 의해서 발병되기도 하며, 생물학적 이상으로 인해 발병되더라도 추후 심리, 정서적 요인에 의해 증세가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이 장애들은 22세 이전에 나타나고 무한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생활 활동 영역-자기보호, 수용 및 표현 언어, 학습, 이동, 자기 관리, 독립생활 능력, 경제적 자급자족 중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기능상의 한계를 갖게 하고 평생 또는 장기간 동안 특수하거나, 둘 이상의 다른 분야나 일반적인 보호, 처치, 기타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중증의 만성 장애이다.<sup>5)</sup> 따라서 이 장애들이 발병하는 시기에 접하게 되는 사회집단인 학교를 통해 교육과 동시에 치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자기중심적 자기감정에 따른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은, 발달장애 청소년 교육복지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 청소년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표 3. 자기감정의 개선 방향

자기감정	개선 방향
--1	만족의 증진과 감각적 느낌에의 집중
--2	자존과 신체의 안정성 증진
--3	자신감의 증진과 힘의 단련
--4	내면의 자유 증진 그리고 신체의 이완 <sup>6)</sup>

3. 대안학교 공간과 루돌프 슈타이너의 치유 이론

3.1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인지학(人智學) 치료의 이론적 배경은 루돌프 슈타이너<sup>7)</sup>의 정신과학을 기반으로 한다. 슈타이너의 정신과학은 특별한 인간관을 제시하고, 인간은 자신의 기원과 분명한 연계를 지닌다는 것을 알리며, 자연계와 건강과 병에 대한 명백한 관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인지학은 현대인이 안고 있는 시대적 현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다.<sup>8)</sup>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간의 사고, 감정 그리고 의지 부분에서 영혼과 관련된 특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영혼의 특성은 주관적이라고 부르는 내적 세계와 공통적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외적 세계를 연결시킨다. 사고, 감정 그리고 의지에 근거하여 인간은 타인을 인식하고 자신의 개별성을 드러낸다. 현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 영역에서 뚜렷한 모습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다. 육체의 경우 해부를 통해서 이해하려 하지만 단지 무수한 부분만을 발견할 뿐이고 전체적인 모습의 발견은 간과하게 된다. 인간 존재의 세 영역은 사회 치유적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다. 육체를 위하여 건강한 신진대사가 필요한 것처럼

6) 막스 튀셔 저, 김지혜 역, 우리 안의 조화의 법칙, 까치 출판사, 2003, p.74-83  
 7)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2.27~1925.3.30, 루돌프 슈타이너는 안트로포소피(Anthroposophie, 인지학)의 창시자이다. 오스트리아의 독일인 철도원을 아버지로 두고, 현재에는 크로아티아에 해당하는 헝가리 지역에서 태어나 신비사상가, 건축가, 교육자로서 유명하다. 독일어권에서 처음에는 괴테 연구자로서 시작하였으나 1900년대부터 신지학협회에서 활동하였고 의견을 달리하여, 1912년에는 탈퇴하여 인지학협회를 창립하였다. 1919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 최초로 자유 발도르프 학교를 창시하였으며, 현재 인지학의 이론아래 치료교육학과 관련하여 유럽 전역에 캠프힐(도르프게마인 샤프트)가 건립되었으며, 유기농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데메터, 생명역동농법이 농학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건축으로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괴테아눔이 유명하며,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크리스찬게마인테(종교)가 형성되었다. 의학과 관련하여서는 발라와 벨레다 등의 유명약품 회사가 있다.  
 8) Eva Mees-Christeller 저, 정정순, 정여주 역,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예술치료, 학지사, 2004, p.13



위의 통합이론을 통하여 표2에서 언급된 발달장애 및 정서장애의 치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아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는 부모의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나 규율로 인해 형성된 ‘초자아의 비대’에 따른 죄책감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해석이다. 10, 11세 아동의 0.3% 정도가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남자는 9세, 여자는 11세쯤에 발병한다. 강박장애를 지닌 사람은 강박적 성향을 띠게 되는데 자기중심적이며 성취지향적, 완벽주의적이다. 따라서, 막스뮌셔의 감정분류 중 자기불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치료는 만족의 증진과 감각적 느낌으로의 집중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 경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강박적으로 손을 씻는 환자에게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흙과 같은 것을 만지게 한 다음 몇 시간 동안 손을 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섯 가지 예술 치료 중 오감을 자극시키는 조경치료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내·외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아감각 형성을 도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계되어야 하는 공간표현요소는 촉각적 내용성을 가장 중요한 그 해석기준으로 삼는 만족-피난처성(Content-Refuge)이다. 필수적 안전함과 공간적 보호감을 띠는 공간을 통하여 외부에서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야 하고 ‘평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기 붕괴성 장애(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는 자폐증과 매우 유사하나 임상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발달장애이다. 2세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나 언어, 사회적 기능이 상실되고 대소변 조절에 어려움이 나타나며 놀이나 운동기술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따라서 자존과 신체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예술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울동, 미술치료가 적합한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울동치료는 청각, 시각적 요소를 통하여 생명 운동, 균형 감각을 형성시킨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신체를 형성하여 언어감각과 자아감각 형성에 지원할 수 있다. 미술치료 또한 촉각과 시각적 경험을 통하여 생명 감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아감각 발달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미술치료의 경우 다섯가지 감각의 모든 적용보다 시각각(vision)에 충실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각을 통해 내면화되는 이미지를 통하여 적절한 흥분을 유발하는 다양성과 변화성을 질서있게

조절하여 주는 통일성의 조화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 증시되는 자존-조망성(Self esteem-Prospect)의 반영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개념들은 자존의 감정을 충족하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리고 울동치료의 경우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자신의 이미지와의 교류를 통하여 자존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내면적(internal) 조망성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적대적 반항 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는 어른에게 거부적이고 적대적이며 반항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장애이다. 우울해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참을성이 적으며 항문기적 문제 또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열등감으로 인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의 증진을 통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심리적 상태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음악치료를 통하여 경계심을 지녔던 타인에게 자신을 개방시키도록 하면서 타인, 외부 환경을 수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울동치료의 요소가 반영된 극치료를 통하여 타인과 자신의 역할을 역치함으로써 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정서적인 측면의 투사와 상호인간관계를 격려할 수 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적대적 반항 장애는 자신감의 결여가 근본적 원인이므로 자신-흐름(Confidence-Flow)의 공간표현요소가 강조된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지점의 도달을 위한 공간적 에너지의 발현과 관련된 ‘흐름’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갖는 능동적 역동성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증상이 있으며 자유방임형 혹은 과잉보호형의 가정에서 발생한다. 극과 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정 상태에서 같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정상태 모두가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에 있다. 주변인들이 모두 자신을 싫어한다는 부정적이고 자기혐오적인 생각에 빠져 자신만의 공간을 형성하고, 자신이 주인공인 사이버 공간으로의 도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의 자유 증진과 신체의 이완을 목표로 개선되어야 한다. 정신의 질적, 양적 향상을 지원하는 독서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미술치료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치료 모두 신체적 활동보다 정신적 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내적 측면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 공간 또한 ‘내면적 자유’의 체험을 목표로 하는 허공(Void)의 요소를 지녀야 한다. 비밀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은 고정된 일상적 프로그램을 배제한 ‘허공’의 불확정적 비밀상성과 여유감을 제공하여 정신적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표 6. 성미산학교 시설현황

학교명	시설현황(수)											
	교실	행정실	식당 주방	교사실	휴게실	컴퓨터실	체육실	음악실	미술실	도서실	목공예실	기타 공간 <sup>12)</sup>
성미산 학교	13	1	1	1	-	1	-	1	1	1	1	1

## 5. 성미산 학교의 치유환경 사례분석

### 5.1 성미산 학교 개요

성미산 학교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에 개교한 비인가형 대안학교로 단독시설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1994년 서울 마포에 세워진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모태로,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벌였던 마포구 일대 주민들의 마을지킴이의 일환으로 ‘마을학교’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지역주민인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학교와 마을주민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 즉, 올바른 관계 속에서 스스로 선 사람은 자연과 사회 나아가 우주 만물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모두를 살리게 한다라는 교육 이념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탈학교학생뿐만 아니라 자발적 선택을 통한 아이들로 이루어져있고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교사 2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2. 성미산 학교의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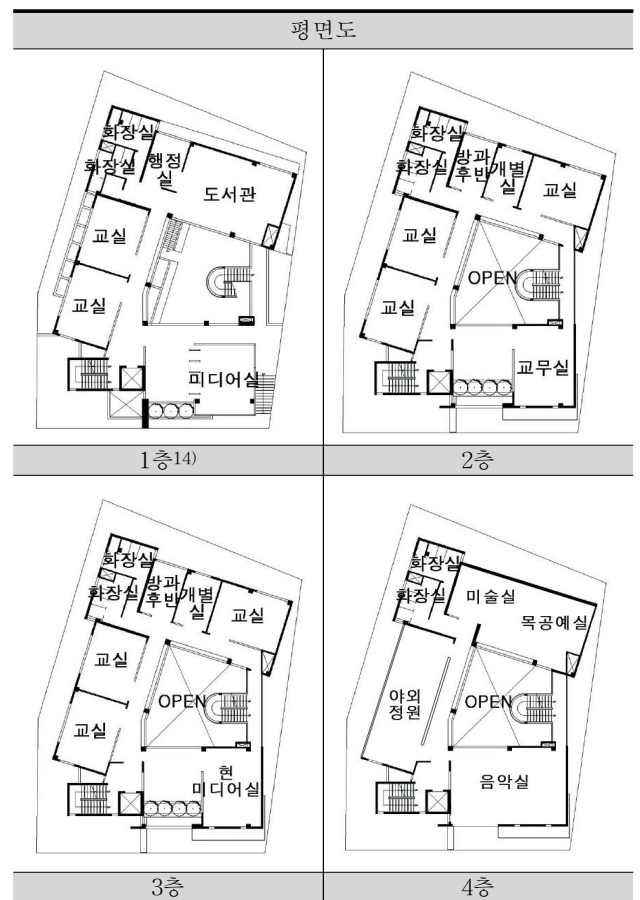
### 5.2 공간구성과 5가지 치료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교실 13개실, 음악실 1개실, 도서실 1개실, 미술실 1개실, 목공예실 1개실<sup>13)</sup>로 이루어

12) 성미산학교는 다목적실을 체육실, 식당, 공연장 등의 용도로 사용  
13) 평면도상에서 미술실과 목공예실이 한 실로 이루어져 있으나, 수납장을 통한 파티션 구획이 이루어져 있으며 독립적 공간이 잘 이루어

어져 있으며 체육실의 경우 독립된 실로서 활용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지하층의 다목적실을 체육실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4층의 야외정원을 비롯하여 각층마다 코어근처에 작은 화단을 조성하여 조경치료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있다.

표 7. 성미산 학교의 각층 평면도



#### 5.2.1 독서치료-만족과 내면적 자유

독서치료효과는 만족감의 증진과 감각적 느낌에의 집중(만족-피난처성[Content-Refuge]), 내적 자유감 증진과 신체 긴장의 이완(내면적 자유-허공[Liberty-Void])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독서

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각각 1개실로 분할하였다.

14) 1층의 미디어실 공간은 현재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미니샵을 운영하고 있다.

는 치료매개체인 책을 통해 지식교류를 하며 이와 함께 자신의 내면과의 정서적 교류를 이룬다. 이처럼 독립적인 치유방법 중 하나로써 개인이 외부에서 자유로워져 사고의 교환과 정신적 교환이 동시에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한다.



그림 3. 도서관의 내부      그림 4. 도서관의 선형적 공간

사례학교의 도서관은 학교의 입구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공간이다. 교실 2개를 합친 약 25평형의 넓은 공간으로 별도의 구획 없이 높낮이가 다른 책장을 이용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있다.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벽측 공간은 높은 책장을 양쪽으로 배열하여 외부의 시선을 차단함으로써 공간에 들어섰을 때 피난처성을 띤 독립된 공간을 제공해 만족의 감정에의 집중에 도움을 준다. 주변시야범위의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선형(linear)의 배치는 타인과의 분리를 이루게 한다. 외부 교류와는 분리된 치유 프로그램 특성으로 인해 이 선형공간을 별도로 벽체를 통해 각자에게 분배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피난처성을 띤 심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 가운뎃에는 낮은 책장의 배치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간을 형성 하였고 안마당으로의 시선을 열어줌으로써 사색(meditation)을 통한 안정감을 얻게 하고 있다. 부드러운 빛이 유입되는 안마당은 허공으로써 내면적 자유의 감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 상대적인 허공적 요소      그림 6. 빛의 유입 통로(전창)

### 5.2.2 미술치료-만족, 자존과 내면적 자유

미술치료효과는 만족감의 증진과 감각적 느낌에의 집중(만족-피난처성[Content-Refuge]), 자존과 신체의 안정성 증진(자존-조망성[Self esteem-Prospect]), 자유증진과 신체긴장의 이완(내면적 자유-허공[Liberty-Void])이 충족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미

술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세계로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이를 눈과 손을 통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표현한다. 일정한 호흡 리듬 반복을 통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데 도움을 준다. 이로써 자아존중감과 성취감 그리고 내면적자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림 7. 목공예실      그림 8. 미술실

성미산 학교는 미술치료를 위해 최상층(4층)에 미술실과 목공예실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실과 목공예실 역시 교실 2개를 합친 정도의 공간으로 두 실이 한 공간에 있지만 가구를 이용한 구획을 통해 독립된 두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층고가 높은 공간 내에 공존하여 두 공간 모두에 여유감과 해방감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미술이라는 정적인 행위 특성으로 인해 동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달리 가구만으로도 공간구획이 가능했던 것이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색채는 현실적인 영상이 아니며 생명, 영적인 영상이라고 하였고 녹색, 살구색, 흰색으로 상승해 가면서 생에서 혼으로 가까워진다고 하였다. 흰색벽면의 노출을 최대화하고 내부로의 빛의 유입을 최대화하여 흰 공간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자아, 영혼과의 교류를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피난처성의 목표인 평온의 상태 또한 충족시킨다. 작업대와 전시대 이외의 불필요한 solid는 제거함으로써 내면적 자유의 확장을 돕고 상시 전시되어있는 자신의 결과물을 통해 자아와의 교감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 미술실의 전창은 도서관의 그것과는 다르게 하늘을 향한 시야의 확보를 이루고 자연 속에서 자신이 하나의 존재임을 인식하여 자존의 확립을 이루게끔 한다. 실을 최상층에 위치시킴으로써 외부 시선의 내부로의 유입을 차단하여 피난처성과 조망성이 공존하는 공간, 즉 만족감과 자존감을 모두 충족하게 하고 있다.



그림 9. 벽면에 전시된 작품      그림 10. 창으로 보이는 경관

5.2.3 음악치료/윽동치료<sup>15)</sup>-자존과 자신, 만족

음악치료/윽동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자존과 신체의 안정성 증진(자존-조망성[Self esteem-Prospect]), 자신감의 증진과 힘의 단련(자신-흐름[Confidence-Flow]), 만족감과 감각적 느낌에의 집중(만족-피난처성[Content-Refuge])을 담아야 한다.

음악치료는 영혼을 통한 내적세계의 표현이다. 가장 아무런 숨김없이 외부세계에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확립하고 생명에너지 발산을 통해 자신감을 증진케 한다..

윽동치료는 정서와 신체의 통합 과정으로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론에 따르면 전인적 치유에 가장 적합한 치료라 할 수 있다.

음악치료와 윽동치료 모두는 외부로 자신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표출시킴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표정 및 외양과 움직임의 재확인할 수 있는 공간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림 11. 음악실



그림 12. 안마당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안마당에서 아이들은 자연 및 서로간의 교감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안정된 보호감각을 형성해 피난처적 만족감을 충족하고 있다.

5.2.4 조경치료-내면적 자유, 만족, 자존

조경치료효과는 자유증진과 신체의 이완(내면적 자유-허공[Liberty-Void]), 만족의 느낌과 감각적 느낌에의 집중(만족-피난처성[Content-Refuge]), 자존과 신체의 안정성 증진(자존-조망성[Self esteem-Prospect])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조경치료에선 경관치료와 원예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경관치료에선 허공으로의 조망을 통해 자연, 공기, 물, 햇빛을 마주하며 생명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내면적 자유감과 자존감이 충족된다. 반면 원예치료 측면에선 흙과의 촉감을 통해 자연과 합일된 감각의 체험을 가능케 하여 피난처적 만족감이 충족된다.



그림 13. 야외정원



그림 14. 입구에 조성된 화단

성미산 학교는 최상층에 음악, 윽동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음악실과 지하층 다목적실을 운영하고 있다. 평면도를 살펴보면 음악실과 미술실이 중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로의 독립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음악실의 경우 다른 층의 교실과는 다르게 중정을 향하지 않고 반대쪽 벽에서 창이 내어져있다. 이 창을 통해 미술실과 유사하게 허공으로의 조망 확장을 이룰 수 있다. 음악실은 중정을 향한 벽면에 악기들을 정리해둘 수 있는 악기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윽동을 제약하는 공간적 요소는 두고 있지 않다. 다른 교실보다 입구를 작게 두어 아이들의 노랫소리 확산범위를 음악실 공간에 한정시킬 수 있게끔 하였다. 한쪽 벽면은 전면 거울을 두어 아이들은 자신의 움직임을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면세계 생명감각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켜주고 있고 자신뿐 만이 아닌 주변의 움직임을 관찰 할 수 있는 시각적 흐름을 제공하여 사회적 조망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한 정서 교류 증대를 통해 공동체적 자존감을 지원하고 있다.

사례학교는 최상층의 미술실과 음악실 사이에 야외정원을, 최상층을 제외한 2,3층 코어근처에는 작은 텃밭을 두고 1층에는 안마당과 더불어 도서관으로 가는 입구에 화단을 두어 원예치료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다.

야외정원의 경우 정원의 위치를 건물의 가장자리로 두어 시선을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리면서 심적 안정과 해방감을 얻게 하고 있다. 교실공간과 유사하게 독립적 구분을 통해 개인적 자존감을 높여주며 재충전(Refreshment) 기회를 제공해준다. 야외 나무데크를 통하여 좀 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근처의 미술실에서의 정서 환기를 위한 연계 공간으로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2,3층의 작은 텃밭은 도시형 대안학교의 제약된 조경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나 항상 자연과 내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장치가 된다. 1층 입구에서 도서관을 향해 이루어진 화단과 좌측의 안마당은 교내 학생들 뿐 만 아니라 방문하는 외부인으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해주며 도시적 스케일에서 마을 내의 피난처적인 만족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음악실을 통해 음악치료와 윽동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실을 중심으로 두가지 치료요소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 6. 결론

본 연구는 성미산 학교를 중심으로 도시형 대안학교의 치유적 교육과 공간의 치유요소를 막스 뤼셔와 루돌프 슈타이너의 치유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대안학교의 공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성미산 학교는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 중 드물게 단독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써 치유교육프로그램이 각 개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그램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보다 높았다. 그리고 치유적 공간표현요소에 있어 실들 간 상호 보완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한 본 연구 분석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도시형 대안학교의 경우, 공간평가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열악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안학교의 대부분이 비인가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대안학교의 인가 범위를 확대시키고 더불어 대안학교로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형 대안학교의 교육대상은 일반 학교의 교육대상과 비교했을 때, 자기중심적 감정이 강하고 탈학교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인 교육 뿐 만 아니라 내면적 치유, 전인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내면적 치유, 전인적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치료 방법과 적합한 공간 요소가 연계되어야 한다. 대안학교 계획에 있어 더 이상 교실을 위한 공간 나누기만이 아닌 공간 자체가 치유요소가 될 수 있도록, 혹은 치유 프로그램과 더불어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공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상기한 내용의 실현 방법으로써 내면적 인격 특성을 강조한 막스 뤼셔와 전인적인 감각교육을 강조한 루돌프 슈타이너간의 이론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은 치료프로그램과 공간표현요소 및 감정특성간의 연계 구성 적용을 제안한다.

독서치료;Void(-내면적 자유), Refuge(-만족)  
 미술치료;Refuge(-만족),Prospect(-자존감),  
 Void(-내면적 자유)  
 음악치료;Refuge(-만족), Flow(-자신감)  
 율동치료;Prospect(-자존감), Flow (-자신감)  
 조경치료;Void(-내면적 자유),Refuge(-만족),  
 Prospect(-자존감)

교육대상의 특성이 변화하면 교육대상을 담는 하드웨어의 변화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날로 증가하는 탈학교학생 등으로 인한 사회심리적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막스 뤼셔와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론간에 상호보완 되는 심리치유의 측면을 공간표현 특성과 연계 적용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도시형 대안학교공간의 치유환경계획 및 설계와 거주후 평가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김광호, 생태적 매트릭스 공간, 미건사, 2004
2. 김광호, 공간표현과 감정특성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5
3. 김혜연, 김광호, 진달래, 어린이 도서관의 전인적 치유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7
4. Max Lüscher저/김지혜역, 우리 안의 조화의 법칙, 까치 출판사, 2003
5. 이민선, 정진주, 최효승, 도시형 대안학교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역시설과 연계 활용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0권, 제2호, 대한건축학회, 2008
6. 이상은, 발달장애 청소년 교육복지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 청소년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 논문, 2004.8
7. Eva Mees-Christeller저/정정순의 역,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예술치료, 학지사, 2004
8. 진달래, 김광호, 김혜연, 감성적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를 통한 치유적 사무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7
9. 성미산 학교 홈페이지(<http://www.sungmisan.net>)

접수 : 2009년 09월 29일

1차 심사 완료 : 2009년 10월 26일

최종 수정본 접수 : 2009년 11월 13일

3인 익명 심사 필